

2016. 03. 14. ~ 03. 20. 주간

76
VOL

전남농업정보

■ 주간 기상전망

■ 농작물 재배 동향(관측정보)

· 3월 마늘·양파·대파 가격동향 및 전망

■ 농작물 출하 및 가격동향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우리쌀, 중국 최대 국영식품기업 연계 현지 소비자 입맛 공략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국내 최초로 육성한 토종 약초 '대홍' 자치 자급생산 가능

· 전남 농특산자원 성인병 예방치료에 좋다

■ 정책동향

· 농촌청년 사업가 전략지원으로 미래농업 주역 양성

■ 해외 농업정보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 5

-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2~5mm)보다 많겠음

☼ 농산물 동향(관측정보) 8

- ▶ 3월 마늘·양파·대파 가격동향 및 전망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9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11

- ▶ 순천시, 올해 전국 첫 노지 모내기 실시
- ▶ 광양시, 매실·원예 부자 농업인 육성 본격 실시
- ▶ 담양군, '대숲맑은 담양 딸기', 붉은 유혹으로 전국 소비자 공략한다!
- ▶ 구례군, 농업유산 산수유농업 해설역량강화 워크숍 가져
- ▶ 고흥군, '웰빙 직거래 장터' 오는 12일 개장
- ▶ 보성군, 보성차(茶) 마시기 운동 전개
- ▶ 해남군, 벼 무논점과 2,300ha로 재배면적 확대
- ▶ 무안군, 2017 농림축산식품사업 359억원 확정 의결
- ▶ 함평군, 벼 친환경 농업단지에 곡물건조기 10대 투입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20

- ▶ 우리쌀, 중국 최대 국영식품기업 연계 현지 소비자 입맛 공략
- ▶ “한국 농식품 대일 수출 확대 박차”
- ▶ 한우고기, 가격·품질로 아시아 적극 공략해야
- ▶ 예산 황토사과, 동남아 시장 공략 박차
- ▶ 느타리 신품종 ‘흑타리’ 해외시장 공급 적극 추진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26

- ▶ 국내 최초로 육성한 토종 약초 ‘대홍’ 지치 자급생산 가능
- ▶ 전남도 유기농 실천 확산 총력
- ▶ 전남 농특산자원 성인병 예방·치료에 좋다
- ▶ 저온기 전열선 활용으로 고품질 수박 생산 가능
- ▶ 생강 수확량 최대 40% 증대 재배법 개발
- ▶ 경기농기원, 개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기술, 효과 입증
- ▶ 시설하우스도 황사주의보! 방치하면 생산량 감소!
- ▶ 건조하고 일교차 큰 봄, 닭 관리 요령

❁ 정책 동향 38

- ▶ 농촌청년 사업가 전략지원으로 미래농업 주역 양성
- ▶ 청년 창업농 양성, 기반을 마련하다!
- ▶ 도 농기원 『수출지원T/F팀』 가동
- ▶ 쌀 가격 안정 위해 2015년산 시장격리
- ▶ '15년산 쌀 15만 7천톤 시장격리 매입절차 추진
- ▶ 신규 취농 진입장벽 농지부터 낮춘다

▶ 중국, 쇠고기 수급 불균형

▶ 프랑스 대형유통매장 오상, 신선제품 Click & Collect 서비스 제공

▶ 해외 곡물시장 동향 '2016. 03. 10.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미 남서부 평원 밀 벨트의 건조한 기후와 델타지역의 폭우 등 기상악화에 대한 우려로 숏커버링과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 마감하였음.
- 옥수수 :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미국의 기상악화에 대한 우려와 예상보다 많은 옥수수의 수출 수요로 가격이 상승함.
- 대두 : 미 농무부의 월간 수급 보고에 따르면 밀과 대두의 세계 재고량이 하향조정 되었으며 이는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 상승을 지원하였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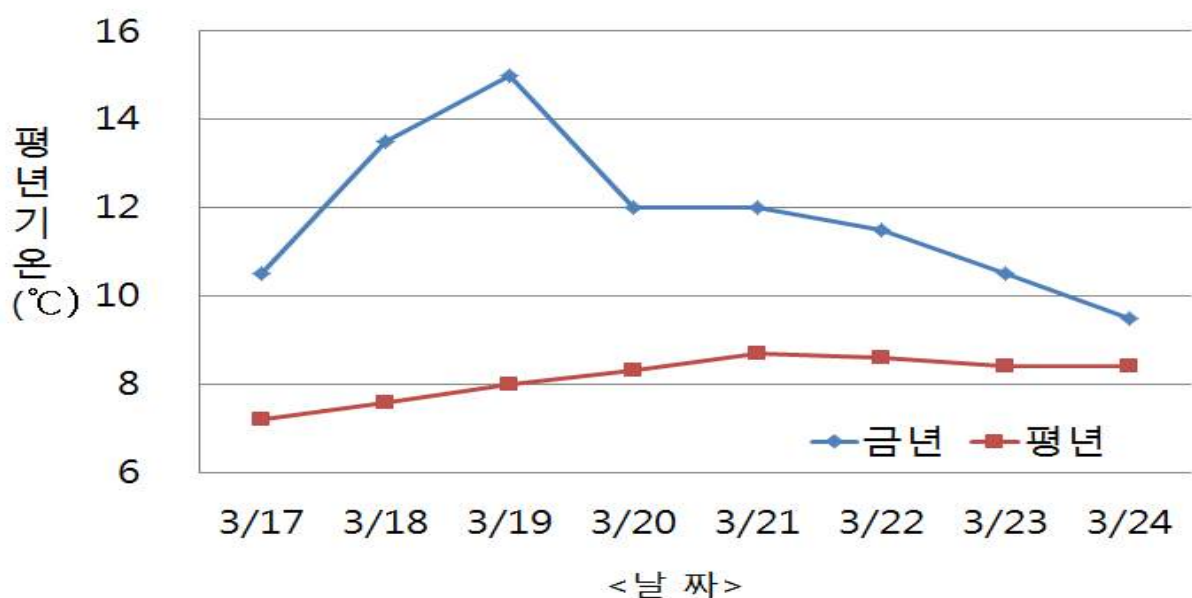
▶ 2016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 사업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1.8	8.2	3.6	16.6	14.3	2.4	6.9	3.1	3.8	2.5
3. 17.(목)	10.5	7.2	3.3	17.0	13.2	3.8	4.0	2.2	1.8	2.7
3. 18.(금)	13.0	7.6	5.4	15.0	13.9	1.1	11.0	2.4	8.6	2.1
3. 19.(토)	15.0	8.0	7.0	19.0	14.4	4.6	11.0	2.6	8.4	2.1
3. 20.(일)	12.0	8.3	3.7	17.0	14.8	2.2	7.0	3.0	4.0	2.2
3. 21.(월)	12.0	8.7	3.3	17.0	14.9	2.1	7.0	3.5	3.5	2.4
3. 22.(화)	11.5	8.6	2.9	17.0	14.6	2.4	6.0	3.7	2.3	2.7
3. 23.(수)	10.5	8.4	2.1	16.0	14.2	1.8	5.0	3.7	1.3	2.9
3. 24.(목)	9.5	8.4	1.1	15.0	14.1	0.9	4.0	3.6	0.4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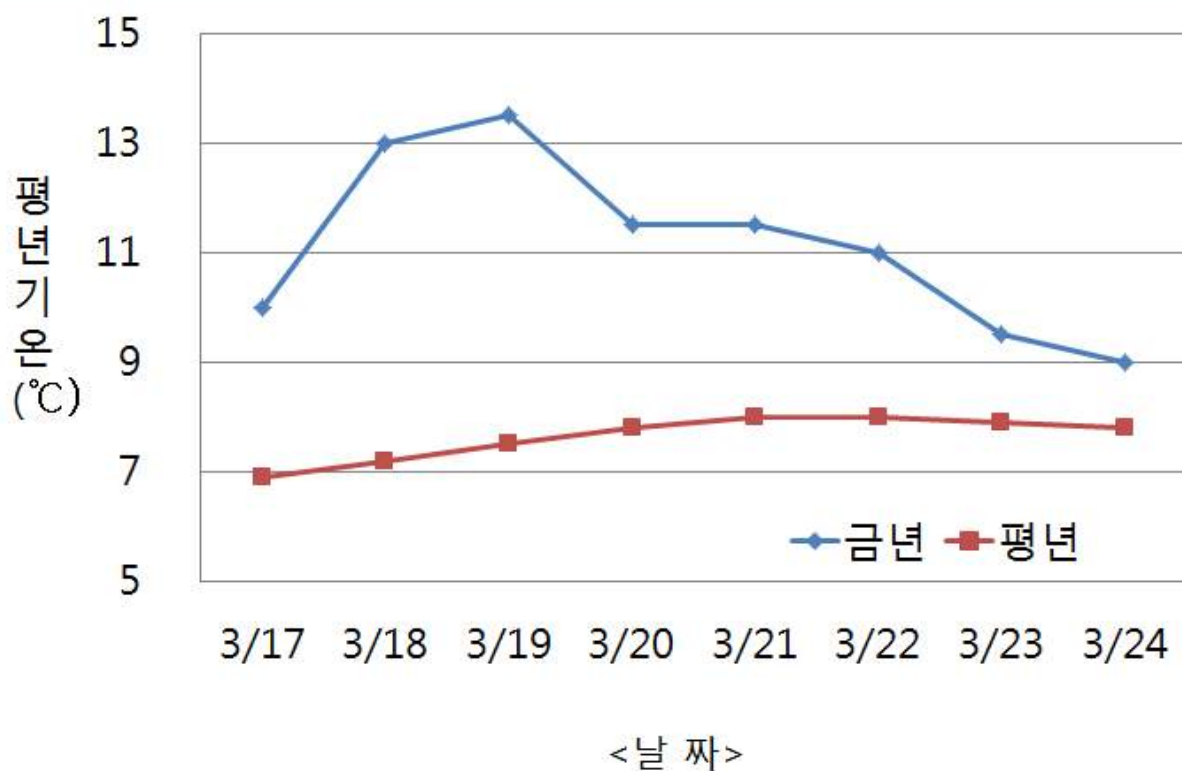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1.1	7.6	3.5	15.3	13.1	2.2	7.0	3.6	3.4	2.6
3. 17.(목)	10.0	6.9	3.1	15.0	12.2	2.8	5.0	2.8	2.2	3.0
3. 18.(금)	13.0	7.2	5.8	15.0	12.7	2.3	11.0	3.0	8.0	2.5
3. 19.(토)	13.5	7.5	6.0	16.0	13.2	2.8	11.0	3.2	7.8	2.4
3. 20.(일)	11.5	7.8	3.7	16.0	13.5	2.5	7.0	3.6	3.4	2.6
3. 21.(월)	11.5	8.0	3.5	16.0	13.6	2.4	7.0	3.9	3.1	2.7
3. 22.(화)	11.0	8.0	3.0	16.0	13.3	2.7	6.0	4.1	1.9	2.7
3. 23.(수)	9.5	7.9	1.6	14.0	13.0	1.0	5.0	4.1	0.9	2.7
3. 24.(목)	9.0	7.8	1.2	14.0	13.0	1.0	4.0	4.0	0.0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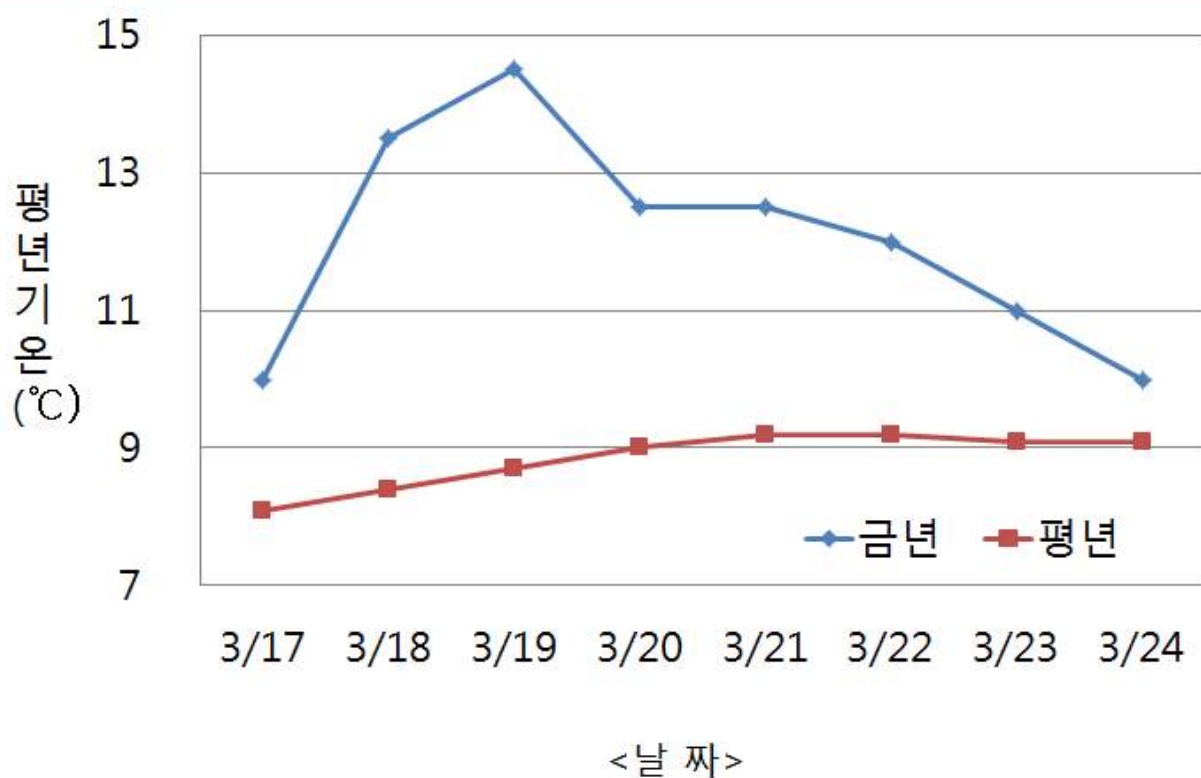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2.0	8.9	3.2	15.4	12.9	2.5	8.6	5.4	3.2	2.9
3. 17.(목)	10.0	8.1	1.9	14.0	12.3	1.7	6.0	4.5	1.5	3.9
3. 18.(금)	13.5	8.4	5.1	15.0	12.6	2.4	12.0	4.8	7.2	3.0
3. 19.(토)	14.5	8.7	5.8	17.0	12.9	4.1	12.0	5.1	6.9	2.8
3. 20.(일)	12.5	9.0	3.5	16.0	13.1	2.9	9.0	5.5	3.5	2.6
3. 21.(월)	12.5	9.2	3.3	16.0	13.2	2.8	9.0	5.8	3.2	2.7
3. 22.(화)	12.0	9.2	2.8	16.0	13.1	2.9	8.0	5.9	2.1	2.8
3. 23.(수)	11.0	9.1	1.9	15.0	13.1	1.9	7.0	5.8	1.2	3.1
3. 24.(목)	10.0	9.1	0.9	14.0	13.0	1.0	6.0	5.8	0.2	2.6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산물 동향(관측정보)

3월 마늘·양파·대파 가격동향 및 전망

□ 마늘, 양파, 대파 2016년산 재배면적 전년 대비 증가 전망

- 2016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평년 대비 16% 감소하나, 전년 대비 5% 증가 전망
- 2016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평년 대비 13% 감소하나, 전년 대비 3% 증가 전망. 특히 조생종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4%, 생산량은 20% 증가할 전망
- 3~5월 대파 정식 의향면적은 전년 대비 7% 증가 전망. 가격 안정을 위한 계획적인 정식 필요

□ 3월 마늘·양파 가격 전월 대비 보합세, 대파는 약보합세 전망

- 마늘 3월 도매가격은 2015년산 재고량이 적어, 평년(3,802원/kg)보다 높으나, TRQ 방출 및 도입 영향으로 전월 대비 보합세인 6,000원/kg 내외 전망
- 양파 3월 도매가격은 2015년산 재고량이 적어 평년(763원/kg)보다 높으나, 조생종 출하량 증가로 전월 대비 보합세인 1,300~1,500원/kg 전망
- 대파 3월 도매가격은 겨울대파 출하량 감소로 평년(1,499원/kg)보다 크게 높으나, 전월 하순 대비 보합세인 2,300~2,600원/kg 전망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6. 03. 14.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3/14)	1주일전 (03/0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36,200	36,200	36,200	40,800	42,133	↓ 11.3	↓ 14.1
	콩(백태)	35kg	150,000	150,000	149,250	136,000	182,000	↑ 10.3	↓ 17.6
	고구마(밤)	10kg	27,200	27,200	27,300	27,900	27,473	↓ 2.5	↓ 1.0
	감자(수미)	20kg	33,200	32,600	31,000	35,200	29,547	↓ 5.7	↑ 12.4
채 소 류	배추(월동)	1kg	1,160	1,160	740	480	875	↑ 141.7	↑ 32.6
	양배추	10kg	6,900	7,300	6,800	6,000	7,213	↑ 15.0	↓ 4.3
	오이(다다기계통)	10kg	36,000	35,000	36,917	24,778	35,033	↑ 45.3	↑ 2.8
	애호박	8kg	28,400	26,600	31,200	22,900	25,540	↑ 24.0	↑ 11.2
	토마토	10kg	42,400	36,000	31,150	29,950	33,363	↑ 41.6	↑ 27.1
	당근	20kg	24,600	25,000	24,850	20,800	25,507	↑ 18.3	↓ 3.6
	건고추(화건)	60kg	780,000	780,000	780,000	820,000	870,667	↓ 4.9	↓ 10.4
	풋고추	10kg	46,200	47,400	91,550	68,900	78,870	↓ 32.9	↓ 41.4
	마늘(깐마늘)	20kg	163,000	161,400	160,250	107,200	116,640	↑ 52.1	↑ 39.7
	양파	20kg	32,600	32,200	32,900	13,150	17,250	↑ 147.9	↑ 89.0
	대파	1kg	2,960	2,950	3,185	1,510	1,802	↑ 96.0	↑ 64.3
	파프리카	5kg	27,400	30,200	33,400	26,650	30,897	↑ 2.8	↓ 11.3
	멜론	8kg	28,600	27,600	26,550	27,350	43,313	↑ 4.6	↓ 34.0
	방울토마토	5kg	33,800	33,800	23,550	16,450	25,195	↑ 105.5	↑ 34.2
	수박	1개	19,000	16,600	19,300	15,000	16,010	↑ 26.7	↑ 18.7
과 일 류	사과(후지)	10kg	37,000	36,000	36,600	41,600	52,489	↓ 11.1	↓ 29.5
	배(신고)	15kg	44,000	45,600	44,750	39,800	45,911	↑ 10.6	↓ 4.2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3/14)	1주일전 (03/0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29,000	529,000	529,000	528,000	568,222	↑ 0.2	↓ 6.9
	느타리버섯	2kg	11,600	10,000	12,500	11,600	11,080	0.0	↑ 4.7
	새송이버섯	2kg	9,000	9,000	9,800	8,650	8,643	↑ 4.0	↑ 4.1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8,165	8,056	8,249	6,624	6,053	↑ 23.3	↑ 34.9
	돼지고기(삼겹살)	100g	1,888	1,642	1,903	1,915	1,791	↓ 1.4	↑ 5.4
	닭고기	1kg	5,535	5,570	5,080	5,519	6,227	↑ 0.3	↓ 11.1
	계란(특란)	30개	5,235	5,095	5,515	5,843	5,635	↓ 10.4	↓ 7.1
	우유	1리터	2,549	2,549	2,549	2,545	2,358	↑ 0.2	↑ 8.1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6. 03. 14.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897 천원	5,769 천원	4,147 천원	↑ 2.2	↑ 42.2
	거세	6,989 "	7,137 "	5,333 "	↓ 2.1	↑ 31.1
송아지 (6~7월)	암	2,862 "	2,693 "	1,479 "	↑ 6.3	↑ 93.5
	수	3,442 "	3,271 "	2,093 "	↑ 5.2	↑ 64.5
육우(600Kg)		3,900 "	3,684 "	3,547 "	↑ 5.9	↑ 10.0
젖소수송아지(7일령)		204 "	192 "	96 "	↑ 6.3	↑ 112.5
돼지(110kg)		317 "	345 "	371 "	↓ 8.1	↓ 14.6
육계(원/kg)		1,436 원	1,342 원	1,863 원	↑ 7.0	↓ 22.9
계란(원/특란10개)		894 "	939 "	1,250 "	↓ 4.8	↓ 28.5
오리(원/kg)		1,667 "	1,667 "	2,167 "	-	↓ 23.1

※ '14년 경매비(천원) : 송아지 2,103, 큰소 4,728, 돼지 292/110kg, 육계 1,277원/kg, 오리 1,944원/kg(생산비), 계란 1,006원/10개, 우유 667원/ℓ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4.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순천시, 올해 전국 첫 노지 모내기 실시

- 순천시는 11일 해룡면 선월리에서 올해 전국 첫 노지 모내기를 실시했다.
- 이번 첫 모내기는 해룡면 선월마을 허남길씨(54세)의 0.2ha 논에 극조생종인 ‘기라라 397’ 품종을 심었으며 지난해 보다 일주일 정도 빠른 것이다.
- 지난 2월 5일 침종 후 34일간 육묘를 실시했으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포트 육묘·이앙 방식을 도입하여 병해충과 기온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한 고품미생물제를 투입하여 지력 증진과 염류 장애를 개선한다.
- 조기 재배로 수확한 벼는 추석 전 57년 전통의 ‘하늘아래 첫쌀 순천햐쌀’ 브랜드로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춘 농협 하나로 마트 등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 시는 조기햐쌀 명품화를 위해 1억원을 지원하여 고시히까리 품종으로 조기재배 단지 120ha를 조성하고 650여톤을 생산할 예정이며 경쟁력 제고와 다양한 판로 개척에도 노력하고 있다.
- 한편, 순천지역의 벼 조기재배는 1959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신준호씨가 최초로 재배를 시작하여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

* 출처 : 순천시

■ 광양시, 매실·원예 부자 농업인 육성 본격 추진

- 올해 매실 직거래 장터 운영 등 35개 사업 44억 3천여만원 투입 -

- 광양시는 매실·원예 분야의 부자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시는 지난 7일 농업인교육관에서 2016년 매실·원예분야 지원사업 대상자 교육을 실시했다.
- 이날 교육에는 지난 2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에서 선정된 2016년 새기술 실증 시범사업 및 지원사업 대상자 187명이 참석했다.
- 교육에서는 보조금을 집행할 때의 준비서류와 사업 추진요령,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보조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강화된 보조사업비 집행규정 등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 올해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매실·원예 분야 사업은 ▲광양매실 직거래 장터 운영 ▲매실나무 이용 겨우살이 시범사업 ▲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관광농업 육성 여름과수 시설재배 시범 사업 ▲지역농업특성화 사업 등 35개 사업이며, 453개소에 총 44억 3천여만원이 투입된다.
- 시는 올해 매실·원예 사업추진을 통해 국제화·개방화 등 급격한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안정화와 지역농업 경쟁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출처 : 광양시

■ ‘대숲맑은 담양 딸기’, 붉은 유혹으로 전국 소비자 공략한다!

- 롯데백화점 명동점 등 20개소에서 딸기 축제 개최 및 판매 동시 전개 -

- 담양군이 롯데백화점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숲맑은 담양 딸기 페스티벌과 판매행사’를 동시에 열어 담양 딸기의 달콤한 맛과 향을 전한다.
- 대숲맑은 담양 죽향 딸기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최고의 명품 딸기로써의 입지를 굳혀감에 따라 군은 담양 딸기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롯데백화점과 손을 잡고 딸기 축제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 이번 행사는 롯데백화점 명동점, 노원점, 강남점 등을 비롯한 20개 매장에서 3.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열리는 행사로, 군은 하우스에서 자라고 있는 딸기 실물표본을 전시해 소비자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시식회를 통한 관심을 유도해 딸기 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 또한, 우수고객에게 대숲 유기농 쌀을 증정하는 등 이벤트를 개최하고 이번 축제를 도·농간 자연스런 소통과 향수를 일으킬 수 있는 어울림 마당으로 운영함으로써 전국의 롯데 고객을 단골로 만들 계획이다.
- 군은 딸기 축제를 통해 총 4억 2천만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번 딸기 축제에는 홍성일 담양 부군수를 포함해 직접 딸기 생산에 몸을 담고 있는 봉산농협 박요진 조합장과 봉산딸기공선회의 조길석 회장이 참석할 예정으로 방문 고객들은 담양 딸기의 재배 과정에 대한 설명도 들어볼 수 있다.
- 군 관계자는 “담양 죽향 딸기는 담양군이 역점시책으로 7년여 연구 끝에 개발한 결과물로 국내에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고품질 딸기”라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담양 딸기의 우수성을 세계로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담양군

■ 구례군, 농업유산 산수유농업 해설역량강화 워크숍 가져

- 구례군 (군수 서기동)은 지난 4일 산동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구례산수유농업 보전협의회 회원과 문화관광해설사, 숲해설사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유산 해설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이번 워크숍은 (주)명소 IMC의 황길식 대표를 초빙하여 구례산수유농업의 농업유산적 이해와 가치, 농업 유산의 문화관광적 활용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고 농업유산 관련 올바른 해설을 위한 의견 교환의 시간도 가졌다.
- 매년 3월 산수유꽃축제가 개최되는 구례군 산동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구례산수유농업”은 2014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제3호로 지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다.
- 군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올해 산수유꽃축제를 앞두고 주민이 먼저 구례산수유농업의 농업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지역 방문객들에게 관광과 농업유산을 연계하여 해설할 수 있도록 내적 역량을 키우자는 취지에서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유산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주민협의체인 구례산수유농업 보전협의회 (회장 윤현상)는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산동면 일원에서 열리는 구례산수유꽃축제 행사장에서 농업유산을 배우고 체험하는 산수유농업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 출처 : 구례군

■ “고흥 웰빙 직거래 장터” 오는 12일 개장

- 고흥군은 오는 12일부터 11월 말까지 동강 만남의 광장 내에서 고흥 웰빙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고흥 웰빙 직거래 장터는 지난 2014년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올해로 3년째 운영하고 있다.
- 우수한 품질의 농수특산물을 중간 유통과정을 생략한 직거래로 구매할 수 있어 생산자 제값을 받고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일석이조 장터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 판매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 올해 직거래 장터에서는 27개 농어가에서 정성스럽게 재배한 고흥의 대표 특산물인 유자와 석류를 비롯하여 김·미역·다시마·잡곡·제철 신선농수산물 등 100여 품목을 판매할 예정이다.
- 군 관계자는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고, 친절한 응대와 다채로운 행사로 다시 찾고 싶은 장터를 만들어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고흥군 농·수산물 알리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직거래 장터에서는 명절 특별운영, 시기별 이벤트 및 각종 문화공연, 특산물을 활용한 체험행사 등으로 방문객과 지역민이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고흥군

■ 보성차(茶) 마시기 운동 전개

- 보성제다, 유기농 녹차티백 보성군 전달 -

- 보성군 미력농공단지에 위치한 보성제다 영농조합법인에서는 8일 '군민 차 마시기 운동' 일환으로 녹차 티백 100개들이 3,000개 봉지 (3천만원 상당)를 보성군에 전달했다.
- 그동안 보성군에서는 모범업소와 좋은식단 실천업소 44개소를 대상으로 녹차티백을 지원하고 손님에게 녹차음용수를 제공하여 왔다.
- 이날 전달된 녹차 티백은 관내 전 요식업소에 배부되어 '전 군민 차 마시기 운동'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서찬식 대표는 "많은 군민들이 건강에 좋은 차를 자주 마시기를 바라며, 차의 효능이 널리 홍보되어 전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군에서는 오는 5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제42회 보성다향대축제에서 '군민 차 마시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보성차의 소비를 촉진하고 차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한편 녹차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녹차의 주성분인 카테킨은 항암효과를 비롯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당뇨병 예방, 식중독방지, 충치예방 등에 효과가 있어 매일 마시면 건강해진다고 알려져 있다.

* 출처 : 보성군

■ 해남군, 벼 무논점과 2,300ha로 재배면적 확대

- ha에 백만원 생산비 절감 효과 -

- 해남군(군수 박철환)은 지난 3일(목) 2016년 시범사업 대상 농가 80명을 대상으로 벼 무논점과 재배요령 교육 및 보조금 집행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 이날 교육은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한희석 박사님(국립식량과학원)을 모시고 벼 무논점과 재배에 대한 교육 및 시범사업 세부 추진 방법 및 보조금 집행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위해 마련됐다.
- 해남군은 벼농사 생산비의 지속적 증가와 농가소득의 감소, 농촌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농촌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기존 직파재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벼 무논점과 재배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하고자 노력한 결과 올해 15개소 300ha를 확대 보급, 2016년까지 2,300ha를 재배할 계획이다.
- 무논점과 재배는 일정한 간격으로 벼씨를 뿌리므로(점파) 입모가 안정적으로 확보돼 초기생육이 우수하고, 무논상태에서 파종해 잡초성 벼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적정한 파종 깊이의 골에 벼씨가 점파됨으로써 뿌리 활착이 좋으며, 벼 쓰러짐을 줄일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벼 무논점과 재배는 이앙단계의 노동력 35.3%의 절감과 23억원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
- 기술센터 관계자는 “올바른 보조사업 추진과 투명한 보조금 집행으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가별 지도와 농업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해남군농업기술센터

■ 무안군, 2017 농림축산식품사업 359억원 확정 의결

-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참신한 농정시책 발굴에 최선 -

-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지난 7일 군청 상황실에서 무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017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으로 30개 분야 359억원을 신청하기로 최종 확정 의결했다.
- 무안군은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2일까지 40여 일간 ‘2017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요령을 홍보하고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으로부터 공공사업 14개 분야 176억원, 자율사업 16개 분야 183억원 등 총 30개 분야 359억원 규모의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을 신청 받았다.
- 이에 군은 이들 사업에 대한 분과심의회를 개최, 사업성 분석과 타당성 검토를 통해 우선순위를 부여한 후 이날 전체 심의회를 통해 359억원의 최종 신청예산을 확정하고 심의 확정된 예산은 이후 전라남도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로 최종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무안군 관계자는 “지방교부세 등의 감소로 국비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참신한 농정시책을 많이 발굴하여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신청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무안군

■ 함평군, 벼 친환경 농업단지에 곡물건조기 10대 투입

- 친환경쌀과 일반쌀 혼입 방지로 함평쌀 이미지 제고 기대 -

- 함평군(군수 안병호)이 벼 친환경 농업단지에 곡물건조기 10대를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 친환경쌀과 일반쌀 혼입을 방지해 함평산 친환경쌀의 이미지를 제고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기계 공동이용률을 높여 농가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 지원대상은 벼 재배면적 10ha 이상인 친환경농업단지로 개인은 제외다.
- 단지당 1대를 지원하며, 금액은 단가 1,200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50%(600만원)까지 전액 군비로 지원한다.
- 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은 무엇보다 소비자 신뢰확보가 우선”이라며 “함평산 친환경쌀 브랜드 관리와 농가부담 해소를 위해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함평군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1,977ha (유기농 800ha, 무농약 1,177ha)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출처 : 함평군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우리 쌀, 중국 최대 국영식품기업 연계 현지 소비자 입맛 공략

- 신동진 품종 72톤 다렌항 선적...중량그룹 통해 베이징 지역 판매 예정 -

- 최근 평택항을 통해 수출된 우리 쌀이 중국 최대 국영식품기업인 '중량그룹'에 공급돼 베이징 지역에 유통될 예정인 가운데, 이르면 이달 말 이후 정부가 중국 현지에서 우리 쌀 판촉행사를 추진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대중국 쌀 수출가공공장으로 지정된 서천군 통합RPC와 군산 제회RPC가 대우인터내셔널을 통해 신동진 품종의 우리 쌀 72톤을 중국에 수출했다. 이번에 수출된 쌀은 평택항을 통해 중국 다렌항으로 선박 운송되며, 이는 지난 1월 29일 상하이항으로 우리 쌀 30톤이 중국에 첫 수출된 이후 두 번째 성과로 대중국 쌀 수출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 특히 이번 쌀 수출은 중국의 최대 국영식품기업이자 포춘지(Fortune Magazine)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으로 선정된 중량그룹(COFCO)를 통해 판매될 예정인데, 지난 첫 수출 때 국내와 연계된 유통채널(롯데마트)과 달리 현지 유통채널을 본격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 중량그룹과 연계된 백화점 등 고급매장과 대형마트·편의점·온라인몰 등 다양한 판로로 공급될 우리 쌀은 중국인이 선호하는 2kg 소포장 규격의 COFCO PB브랜드로 판매된다. 특히 PB브랜드 디자인은 경복궁과 한복을 입은 여인의 이미지를 활용해 한국산 쌀 이미지를 집중 강조했다.

- 한편 농식품부는 중국 내 우리 쌀의 인지도 향상 및 소비촉진을 위해 이달 말 이후 베이징·상하이 등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유통채널과 연계한 판촉행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한국 농식품 대일 수출 확대 박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3월 8일에서 11일까지 4일간 일본 마꾸하리 메세에서 개최하는 『2016 동경식품박람회』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김재수) 주관으로 한국식품관을 개설하고, 현지 바이어와 농식품 수출 상담에 들어갔다.
- 올해로 41회째를 맞는 동 박람회는 매년 해외 80여 개국 3천여 개사가 참여하고, 아시아는 물론, 미주, 유럽 등 전 세계 바이어 77천여 명이 방문하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식품박람회로써, 오랜기간 침체에 빠져있는 한국 농식품의 일본시장 수출 회복을 위한 좋은 기회로 기대된다.
- 그 동안 동경식품박람회에는 농식품부 외에도 많은 지자체가 개별적 참가를 통해 지역 특산품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관하에 6개 지자체가 통합한국관 구성을 통한 규모화로 통합 운영 시너지를 제고함으로써 국제박람회 지원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 통합한국관에는 일본의 최신 트렌드인 「Healthy Beauty」에 맞게 생들기름을 비롯한 기능성 건강식품, 외식업체 등 총 88개 업체가 참여하고 김치·수산·임산·식재료, 프랜차이즈, 관광홍보관 등 다양한 홍보관을 앞세워 대대적인 세일즈 상담을 펼칠 계획이다.

* 통합한국관 구성 : 총 88개사(aT 53, 강원 4, 경기 3, 경북 8, 경남 6, 전남 8, 제주 6 등)

-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대일 농식품 수출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 판로 개척 성과를 높이기 위해 바이어 매칭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바이어-업체간 1:1 맞춤 상담이 실시되고, 출전업체 전 상품을 슈퍼마켓 형태로 진열하여 시식과 상담이 한 곳에서 One-Stop으로 이루어지는 멀티 상담관도 운영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식품박람회로써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으로의 한국 농식품 수출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행사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우리의 새롭고 다양한 농식품이 일본 현지 시장에 지속적으로 추가 진입,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한우고기, 가격·품질로 아시아 적극 공략해야

- 홍콩, 중국 등 한우고기 주요국 수출 전략 연구보고서 출간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한우고기 수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묶은 보고서를 한우고기 수출 관계 기관과 업체에 배부한다.
- 농촌진흥청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산업개발연구원과 함께 한우고기 수출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 수출 나라의 맞춤형 쇠고기 생산과 한우고기 육질관리, 유통기술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수출 경쟁력 분석과 주요 나라별 수출 전략 연구는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실시했다.
- 농촌진흥청은 이 보고서를 통해 한류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홍콩과 세계 경제의 주류로 떠오르는 중국, 그리고 일본 주요 도시의 쇠고기 소비현황을 분석하고 한우고기 수출 전략을 제시했다.

- 홍콩은 수입 위주의 농식품 유통 구조를 고려해 판매 능력이 있고 유통망이 우수한 현지 수입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침사추이·사틴 등의 호텔과 고급 양식당, 한식당,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을 중심의 판매 전략이 효과적이다.
- 현지 소매가격은 호주산 화우에 비해 높게, 일본 화우보다 낮게 설정해 우수성과 안전성, 합리적인 가격을 중점 홍보해 홍콩 내 한류 열풍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홍콩에는 검역 문제가 해결되면서 지난해 12월 600kg의 한우등심을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 중국과 일본은 현재 검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수출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하이와 베이징은 현지 수입 업체나 국내 단체를 통해 난징동루, 홍첸루 등의 유통망을 활용하고, 베이징은 수입 대행사와 유통 전문 업체를 거쳐 왕징, 산리툰의 고급 식당과 판매점, 고급 한식당에 공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 현지 적정 소매가격은 상하이와 베이징 모두 저가·고가 사이의 틈새가격 전략이 필요하며, 보다 적극적인 온라인·누리소통망서비스(SNS)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 일본 도쿄는 고급 외국계 양식당과 한식당을 중심으로 판매하되, 오사카는 고급 주점에도 공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현지 소매가격은 수입산 중·저급 쇠고기보다는 높게, 일본 화우보다는 낮게 설정하되, 품질 기준이 까다로운 일본 소비자들의 특성에 맞춰 한우고기에 건강식품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 농촌진흥청은 한우고기 수출 관련 연구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홍콩·상하이·베이징·연변 등 주요 도시의 쇠고기 소비실태와 한우고기 수출 가능성을 조사했다.

- 또한, 수출유관기관과 생산자 단체 등 60여명으로 구성된 ‘한우고기 수출 전문연구가 포럼’을 발족했다. 이 포럼은 지금까지 3회의 공동 토론회를 열고 활발한 정보교류를 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권웅기 한우연구소장은 “한우고기 수출 확대를 위해 한우의 품종 특성과 고기의 우수성을 수출 나라의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관련 단체와 업체의 어려운 점을 듣고 수출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예산 황토사과, 동남아 시장 공략 박차

- 말레이시아·캄보디아 26톤 공급...시설현대화·스마트팜 확산 등 지원사업 전개-

- 예산 황토사과가 지난해 태릉 국가대표선수촌 입성한 데 이어 최근에 동남아 지역에 수출되는 쾌거를 올렸다.
- 예산군에 따르면 최근 말레이시아에 6톤을 수출한 데 이어 24일에는 예산 농산물유통센터에서 20톤의 황토사과를 캄보디아에 수출했다. 또한 베트남 시장에 5톤 규모의 시범 수출을 추진해 현지 바이어들에게 좋은 평을 얻고 있어, 조만간 예산 황토사과의 베트남 수출길도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 예산군은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 및 수출 물류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사과를 비롯한 지역 농산물 수출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예산군 관계자는 “농산물 수출은 내수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가 소득증대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적극적인 마케팅과 시장개척을 위한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느타리 신품종 ‘흑타리’ 해외시장 공급 적극 추진

- 경기농기원, 올해 90만달러 수출달성 목표 -

-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신품종 느타리버섯인 ‘흑타리’의 국내외 시장 확대 보급을 추진한다.
- 흑타리는 우리 고유 우수품종으로, 현재 한국원균 등 5개 종균배양소에 기술 이전돼 전국에서 재배되고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지난해 883톤이던 종균 보급량을 점차 확대하는 한편, 수출도 올해 90만 달러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흑타리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이 3년 동안 연구해 2014년에 개발한 품종으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해 1년 만에 경기도 느타리버섯 생산량의 34% 이상을 차지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품종이다.
- 또한 우수한 저장성으로 수출용에도 적합하다. 실제 지난해 미국에 216톤(82만 7,000달러) 규모의 흑타리버섯이 수출돼, 현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 버섯으로 인정받고 있다.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국내 최초로 육성한 토종 약초 '대홍' 지치 자급생산 가능

- 종자, 뿌리 생산성 높고 시코닌계 색소 등 항균성분 다량함유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국산 약초 종자 자급률을 높이고 전통 홍주 색소원료 및 생약재 안정생산을 위해 약효성분이 높은 토종 약초 지치 '대홍'을 국내 최초로 육성해서 농가에 보급중이라고 밝혔다.
- 지치는 동의보감 등 고서에서 해열, 해독, 혈액순환 개선, 각종 암과 염증 치료에 효능이 탁월하여 국내 최고급 한약재로 수요가 증가하나 아직까지 육성된 품종이 없어 농가에서는 주로 재래종을 재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번에 새로 육성한 대홍 지치는 종실의 크기가 균일하고 무거워 종자생산량이 재래종보다 1.8배가 많아 종자보급에도 매우 유리할 뿐만 아니라 뿌리 생산량도 1.5배가 높아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뿌리에는 진도 홍주 색소원료 및 고혈압, 해독, 항균작용 등 약효성분인 시코닌 함량이 1.5배 정도 높아 생약재로 이용하기에 우수한 특성을 갖고 있다.
- 현재 지치의 국내 소비량은 연간 50톤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로 홍주 색소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 생산량은 재배면적 5ha에서 약 8톤 정도 생산하여 자급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주산지는 우리 도 진도에서 주로 재배하여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김명석 연구사는 이번에 육성한 “대홍 지치는 생육 특성이 우수하고 종자 수확량이 많아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뿌리 생산성과 약효성분 함량이 높아 지치 재배농가의 소득향상 및 생약재 수입대체의 효과가 기대된다” 라고 밝히며 “앞으로 신품종 ‘대홍’ 지치종자를 조기에 농가분양해서 지역특화단지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남도 유기농 실천 확산 총력

- 28일까지 유기재배 토양 만들기 인증 기준 등 6개 권역 순회교육 -
- 전라남도 유기재배 토양 만들기와 유기농업 인증 기준 등 유기농 실천 확산을 위한 순회교육을 오는 28일까지 해남 등 6개 시군에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 이번 순회교육은 지난 2월 유기농 선도 다짐대회에 이어 친환경농업에 대한 농업인 의식을 높이고, 저비용 고효율 유기농업 신기술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 지난 11일 해남을 시작으로 실시된 순회교육은 15일 장성 · 22일 화순 · 23일 무안 · 25일 강진 · 28일 순천에서 각각 친환경농업인과 시·군·읍·면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 주요 교육 내용은 전라남도의 친환경농업 정책방향,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의 유기농업 인증 기준 및 인증 관리방법, 전남농업기술원의 유기재배 토양 만들기, 친환경 병해충 방제기술 등이다.

- 첫 날인 지난 11일 교육에서 전종화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국내 친환경 농식품 시장 규모는 2020년 7조 5천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전라남도는 한국의 유기농업시대를 이끌어갈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최초로 친환경직불금을 정부지원이 끝난 무농약 4년차 이상 농가에도 도비로 50%를 계속 지원하고 있고, 다양한 인증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채소는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과수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차등 상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땅심을 복돋우고, 농업소득 뿐만 아니라 경관 직불금 등 581억원의 농가 소득증대 효과가 예상된다”며 “겨울철에 빈 논이 없도록 보리·밀 등 작물과 헤어리비치·자운영 등 녹비작물 재배를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조영삼 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인증팀장은 농업인들에게 영농일지 작성 시 지켜야 할 사항과 당부사항을 설명하면서 “작물별 생육 기간의 2/3가 경과되기 전에 인증을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 최덕수 전남농업기술원 연구사는 “2013년 말 기준으로 중국·대만·인도·싱가포르 등 중산층 인구가 5억 명이 넘는다”며 “아시아 시장을 우리 안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유기재배 토양 관리와 천연농약 자가 제조로 생산비를 줄여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기술과 기법을 소개했다.
- 전라남도는 유기농 1번지 전남의 이미지 정착과 함께 친환경농업이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새롭게 도약하도록 대대적인 유기농 실천 분위기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 출처 : 전라남도

■ 전남 농특산자원 성인병 예방·치료에 좋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마늘·양파·강황 등 도내 농특산자원의 추출물에 기능성 유효성분이 다량 함유한 것을 확인하였고, 식품향료 대량 생산기술 개발에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 최근 식물에서 유래한 약리활성 물질이나 영양소들을 이용해서 암 예방이나 항암치료 등의 기능성 건강식품을 개발하려는데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로 식품향료나 기능성 첨가물로 이용되는 향신료 중에는 항암, 항산화, 항당뇨, 항동맥경화, 항염증효과 등을 갖는 식물활성 성분들이 들어 있다고 한다.
- 전남산 마늘에서 추출한 천연 정유에는 황함유 화합물인 설피드류(sulfides)가 40% 이상, 비타민 B1의 원료 물질인 Thiazole이 10%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 항균, 혈전 용해작용 등이 뛰어나다고 한다. 또한 설피드류(sulfides) 성분은 마늘·양파 특유의 강한 풍미를 갖기 때문에 식품의 향료로 많이 사용되는데 주로 어육 가공 조리 시 소스와 조미제로, 스프와 향신료, 햄이나 소시지 등의 풍미제로 쓰이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식품향료 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다.
- 또 강황 뿌리에서 추출한 정유에는 뇌손상을 치유하는 성분으로 알려진 Tumerone이 35%이상 함유하여 알츠하이머, 심경변성질환 환자의 뇌건강 회복과 예방에 좋다고 한다.
- 그리고 생강 정유에는 Zingiberene 성분이 30%이상 함유되어 있어서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증 등 심혈관계 질환에 좋다고 한다.
- 전남 농특산자원들은 평소에 애용하는 식품조리의 양념으로 쓰이며 우리의 건강한 밥상을 지키고 음식의 풍미를 돋우는 식품들이다.

- 이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소 조경숙 연구사는 “전남산 지역농특산자원을 활용하여 식품향료 소재와 기능성 식의약 소재를 개발할 계획이며, 도내 향료생산업체에 정유생산 관련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개발한 식품향료 소재를 산업화해서 우리 도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은 물론 식품 가공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저온기 전열선 활용으로 고품질 수박 생산 가능

- 충북농기원, 전열선이 규격과(規格果) 생산 및 조기 수확에 효과 있음을 밝혀 -

- 충청북도농업기술원(원장 차선세)은 시설수박을 일찍 정식하거나 기온이 떨어져 저온피해를 상습적으로 입는 농가들에게 보온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최근 들어 도내 시설수박 주산지에서는 기후 온난화와 수박 정식시기를 앞당겨 3월 상·중순에 정식을 하는 농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갑작스럽게 기온이 내려가면 저온 및 냉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사전에 보온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보온을 위해 수박 묘위에 2중의 비닐터널을 설치하고 그 위에 보온자재를 덮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기존 보온방식으로는 수박의 뿌리내림과 생장을 유지하기 어렵다.

- 이에 수박연구소에서는 기존 보온방식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4년 전부터 시설하우스 내 전열선을 이용하여 보온하는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기존 보온방식에 전열선 2줄을 시설하우스 출입구 앞과 뒤에만 20m씩 설치할 경우 상대적으로 생육이 저조한 출입구 쪽의 수박 생육을 안쪽과 균일하게 할 수 있었으며, 전체 비닐터널 내 온도가 3~4℃ 정도 높아지게 되어 전열선을 전체 설치했을 때와 같이 뿌리내림 향상과 저온 및 냉해 피해 경감에도 효과가 있었다.
- 또한 줄기의 길이도 40% 정도 신장되는 등 초기생육 증진에도 효과가 있어 결과적으로 수확시기를 앞당기고 품질이 좋은 수박을 생산할 수 있어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충북농업기술원 수박연구소 한종우 연구사는 “시설수박을 조기정식 하거나 기온 하락으로 인한 저온 및 냉해 피해를 상습적으로 입는 농가들이 기존 보온방식에 전열선을 사용하면 수박 정식 후 뿌리내림을 좋게 하여 저온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재배기간 동안 생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충북농업기술원

■ 생강 수확량 최대 40% 증대 재배법 개발

- 도 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 ‘비닐피복 재배기술’ 농가 보급 -

- 충남도 농업최대 4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비닐피복 재배기술’을 개발, 농가에 보급한다.

- 이번 재배기술은 우선 4월 상순 일반 재배보다 일찍 생강을 파종한 뒤, 제초제 살포 3~5일 후 벚짚을 3~4cm가량 덮는다.
- 이어 그 위에 투명비닐을 씌운 후,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비닐을 걷어내고 충분히 물을 주는 방식이다.
- 생강 파종 후 초기 투명비닐을 씌우면 지온이 높아져 발아가 빨라지고 균일하게 자라며, 초기 생육이 촉진 돼 외부환경 적응력이 높아지면서 수확량이 증대된다는 것이 양념채소연구소의 설명이다.
- 양념채소연구소 이기환 고추생강팀장은 “초기 투명비닐 피복 재배 방법은 기존 재배에 비해 출현기가 소생강의 경우 12일, 중생강은 17일 빨라져 수확량을 최대 40%이상 늘릴 수 있다”며 새로운 재배기술 활용을 당부했다.
- 이와 함께 종강은 전년도 병 피해가 없었던 포장에서 수확해 잘 저장한 생강 중 겉보기에 싱싱하고 터짐이 없으며 살빛이 선황색을 띠는 것을 선별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씨생강 준비는 소생강의 경우 1,000㎡에 170~180kg, 중생강은 200~220kg 정도가 필요하다.
- 파종 전에는 병해충 예방을 위해 반드시 베노람수화제 200배액과 디메토 유제 1,000배액에 2시간 정도 담궈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 출처 : 충남농업기술원

■ 도 농기원 개발 시설원에 에너지절감 기술, 효과 입증

- 도 농기원, 시설원에 농가 에너지절감 기술 현장 연구 결과 발표 -

-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이 연구하고 있는 시설원에 농가 에너지절감 기술의 효과가 입증됐다.
- 도 농기원은 시설원에 농가 난방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절감 기술 현장 연구를 지난해 안성 토마토농가에 이어 파주 국화농가에서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연구는 기존의 개별농가 단위로 투입되었던 단편적인 에너지절감 기술과 달리 에너지절감 효과가 높은 기술을 복합적으로 적용해 효과를 높이는 현장 연구로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 에너지절감 사업단과 공동으로 추진했다.
- 기존에 개발된 에너지절감 기술 중 효과가 좋은 지중저수열시스템과 다겹보온커튼의 복합 에너지절감 패키지 기술을 현장에 투입한 결과, 복합기술이 적용된 시설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 패키지가 적용된 시설의 에너지 소모량은 10a당 123만 4,470원이었으며, 병커C유 온수난방+다겹보온커튼은 374만 880원으로, 복합기술 적용시설이 67%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었다.
- 이번 연구는 지난해 토마토농가의 난방온도 12℃ 보다 높은 18℃의 온도를 유지해야하는 국화농가에서 이루어져 겨울철 난방온도를 높게 유지할수록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영하 20℃가 넘는 파주의 추운 기온에서도 하우스 내부온도를 18℃로 충분히 유지했으며, 햇빛이 나는 낮 동안에 뜨거워진 하우스의 온도를 팬코일을 통해 축열탱크로 저장해 창을 열지 않고도 하우스 내부온도를 30℃가 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혔다.
- 현장연구를 진행한 농가는 여름철에 냉방기능으로 전환하여 40℃가 넘는 비닐하우스에서 고온스트레스를 받는 식물의 온도를 낮춰 꽃 색이 선명하고 품질 좋은 국화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도 농기원 임재욱 원장은 “난방비는 시설원에 농가의 경영비 가운데 30~4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시설원에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이번 연구결과를 정책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 현장연구는 파주시 적성면 구광회씨 국화농가에서 이루어졌으며, 지난 8일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 에너지절감 사업단, 각도 담당 공무원 및 센터직원,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절감 현장평가회가 진행됐다.

* 출처 : 경기농업기술원

■ 시설하우스도 황사주의보! 방치하면 생산량 감소!

- 기공폐쇄, 투광량 감소 등 황사 영향으로 농작물 생산성 저하 우려 -

-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봄철 불청객 ‘황사’의 영향으로 시설 하우스 작물의 생산량 감소가 우려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황사로 인한 직접적 영향으로는 기공폐쇄에 의한 물질 대사이상이 발생하고, 간접적으로는 시설하우스 투광량 감소에 따른 광합성 저하로 작물의 생산성이 저하된다.
- 황사시와 평상시 비닐하우스의 투광률 비교
 - 황사시기에 비닐하우스의 투광률 감소 \Rightarrow 평상시 대비 7.6%가 저하됨
 - 황사가 이슬이나 비와 함께 강하 시 점착력 강화됨
 \Rightarrow 투광률이 20~30%준으로 저하됨
- 이에 따른 관리요령으로 황사 발생 전에는 기상청의 황사예보와 대책방송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 또한, 황사에 대비하여 비닐하우스 세척 수자원을 확보해야 하며 이때 철분, 염분 등에 의한 2차 피해가 없는 수자원을 확보하고 고장 유무 등을 사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 황사 발생기간 중에는 비닐하우스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황사로 인해 일조가 부족한 경우 LED나 백열전구 등을 이용하여 인공 광을 보충해 준다.
- 황사 종료 후 조치사항은 황사로 인해 햇빛가림이 심한 경우 시설 하우스(비닐·유리)를 분무호스나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해 황사를 씻어 낸다.
- 특히, 비닐 및 유리의 투광도 향상을 위한 세척방법은 비닐하우스의 경우, 수용성세제를 0.5%정도로 희석 후 피복자재에 분무 세척 후 맑은 물로 2차 세척하고 유리온실은 옥살산(oxalic acid) 4% 용액을 이슬이나 강우 시 분무 후, 3일 뒤에 물로 세척하도록 한다.

- 조현기 기술지원과장은 “3~5월까지 봄철에는 황사가 빈번히 발생하며 특히, 중국발 슈퍼황사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라며 “농가에서는 황사 발생 정보에 항상 귀 기울이고 발생시에는 빠른 시일 내에 유리나 비닐을 씻어줘야 시설재배 농작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 * 출처 : 경북농업기술원

■ 건조하고 일교차 큰 봄, 닭 관리 요령

— 온도·습도·환기 중요... 밤낮 기온차 10℃ 이상 벌어지지 않아야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봄철 양계 농장의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해 닭장 내부 온도와 습도·환기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꽃샘추위와 큰 일교차, 건조한 날씨는 닭의 환경 적응력을 떨어뜨려 스트레스를 일으키며, 이는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 육계의 경우 여름철에 맞춰 집중적 병아리를 입식하기 때문에 환절기 세심한 사양 관리가 필요하다.
- 어린 병아리는 체온을 유지할 능력이 없으므로, 1~2일 동안은 31~33℃ 정도를 유지하다가 1일 0.5~1℃, 1주일에 약 3℃씩 온도를 내려 20℃ 전후로 맞춰준다.
- 병아리는 부화장에서 1~2일 후 농장에 도착한다. 갓 부화한 병아리는 소화기관과 온도 조절능력이 성숙하지 못해 빨리 물과 사료를 먹지 못하면 성장률 하락과 폐사율 증가 등 병아리 간의 균일도를 떨어뜨리므로 물과 사료의 공급이 중요하다.

- 일교차가 클 때는 닭장 내부 온도를 유지하느라 환기에 소홀하기 쉽다. 이때, 암모니아·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와 각종 병원균에 의해 생산성 저하나 호흡기 질병 등 손실이 발생하므로, 적절히 환기를 해준다.
- 저온기에는 바깥의 찬 공기가 되도록 닭장 윗부분에서 따뜻한 공기와 섞여서 들어오도록 한다. 내부 순환팬을 가동하면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잘 섞이는 데 도움이 된다.
- 또한, 날씨가 풀렸다고 갑자기 보온시설을 치우면 새벽에 닭장 온도가 떨어져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보온시설은 서서히 치워 밤낮의 온도 차이가 10℃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 습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암모니아 가스와 곰팡이로 질병 위험이 높고, 반대로 너무 낮으면 탈수로 인한 폐사나 먼지 발생으로 인한 호흡기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닭장 내 습도기를 배치해 알맞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육계는 1~2주에는 70%를 유지하고, 이후 60%를 유지한다. 산란계는 처음 2주간 70%를 유지하고 육성기간 동안 60%, 산란기간 동안 45~60%를 유지해 습도가 너무 오르지 않도록 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문홍길 가금과장은 “환절기에 큰 일교차와 꽃샘추위, 건조한 기후의 특성을 이해하고 각 농장에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해 능동적으로 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사양관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7. 정책 동향

◆ 농촌청년 사업가 전략지원으로 미래농업 주역 양성

- 전남농기원, 2019년까지 농업비전과 전략을 갖춘 청년사업가 100명 양성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에서는 최근 40대 이하 젊은층의 농촌 유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천하는 등 농업의 6차산업화로 지역농업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농촌청년사업가 양성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2010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61명의 돈 버는 농촌 청년모델을 양성했고, 금년에도 예비 창업농 11명을 선발하여 농업창업 비즈니스 모델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등 성공창업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금년에 선발된 예비 창업농은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 개개인의 환경에 맞도록 사업계획을 보완하게 되며, 자산증가 부분을 제외한 생산·가공·경영·유통개선·수확관리 등 농업분야 창업을 위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 받게 된다.
- 한편 영농4-H회원을 비롯한 청년농업인을 미래농업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월 11일에 전남농기원에 창업기술T/F팀을 신설하고 영농4-H회원을 대상으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과 창업 과제자금을 24명에게 지원하여 도정시책인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에 부응할 계획이다.

- 앞으로 전남농기원에서는 성공적인 농업창업 지원을 위해 지원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팀을 구성하여 수시로 창업농을 지원하고, 중간 및 결과 평가회와 농가 경영성과 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농촌에 돌아오는 청년들과 변화를 시도하려는 농업인들에게 벤치마킹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남농업기술원 황수정 농촌지원과장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농촌 실현을 위해, 이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반드시 성공한 농촌 청년사업가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사업을 공모한 결과 3월 현재 30명이 신청하여 본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아이디어와 농업경영 및 마케팅 역량을 갖춘 11명의 예비 창업농을 선발할 계획이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청년 창업농 양성, 기반을 마련하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첨단과학 영농기술을 보유한 젊고 유능한 청년 창업농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대 영농 창업 특성화사업을 운영할 대학 5개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농대 영농 창업 특성화사업은 원예, 축산분야에 총 11개 대학이 신청하였으며, 1차 서류(2.2.~4.), 2차 현장(2.13.~20.), 3차 최종심의 위원회(3.4.) 등 3차례의 평가를 통해 5개 대학*이 선정되었다.

* (선정대학)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천안연암대(총 5개교)

- 금번 평가는 영농 창업인 양성에 대한 교육기관의 체계성, 사업 이해도 및 추진의지, 교육시설의 적절성 및 활용도, 대학본부의 협력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 금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농대 영농 창업 특성화사업은 대학에 현장실습이 강화된 별도의 창업 특별과정을 개설하여 원예·축산 분야의 창업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 선정된 학교는 영농의지가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이들 학생은 기존 전공과목과 함께 창업에 필요한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영농 창업 특별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 특별과정은 학점이 인정될 수 있는 과정으로 운영하며, 실습학기제, 현장체험 프로그램, 방학을 활용한 해외 전문기관 연수 등을 포함된다.
- 선정된 5개 학교에서는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관련 산업계와 공동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 산학협력 기반 실습 교육체제 구축, 학생선발 등 준비과정을 거쳐 '16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농식품부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 교육과정 구성운영, 산학협력 체계구축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선정된 5개 대학에서는 '18년 이후부터 졸업 후 영농의지가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전형 제도를 별도로 신설하여 영농인재를 발굴 육성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영농 창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16년도에는 선정된 5개 대학에 운영비 각 2억원씩 총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 주로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 졸업인증제 개발, 실습비 등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지원될 예정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과 연계한 실습 중심의 종합적 교육과정인 농대영농창업특성화사업을 통해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전문 청년창업농을 적극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도 농기원, 『수출지원T/F팀』 가동

- 수출농가 맞춤형 전문컨설팅 추진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한중 FTA 체결 등 급격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농업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 수출농업T/F팀에서는 도내 수출농산물 생산자 단체(농가), 수출업체 등 현황을 조사한 다음, 실제 수출을 하고 있는 농가현장을 방문하여 생산에서 수출까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청취하고 현장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 또한 해외 수출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제공, 농식품 해외 수출입 동향, 국가별 소비시장 및 성향분석, 농식품 안전성 등 수출정보를 공유해 공격적 해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 시장개방의 가속화가 불가피한 이 시점에서 변화에 얼마나 슬기롭고, 능동적으로 빠르게 대처하느냐에 우리 농업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한계를 공격적인 수출로 타파하여 농업의 성장동력을 찾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나갈 계획이다.

- 농업기술원 박혜량 기술보급과장은 수출농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한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수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수출 가능한 전략작목 발굴과 현장애로 중심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수출 대상국 소비자 기호에 맞는 규격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등 현장맞춤형 전문컨설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쌀 가격 안정 위해 2015년산 시장격리

- 전남도, 전국 최다 3만 3천톤 3월 하순 추진 -

- 전라남도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15년산 쌀 3만 3천t(벼 4만 5천톤)을 3월 하순 시장격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쌀값 하락 완화 등 쌀 수급안정을 위해 과잉 생산된 물량을 시장에서 매입해 격리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지역별 재고와 생산량을 감안해 매입 물량이 결정된 것으로 전국 시장격리 15만 7천톤의 20.7%를 차지, 전국 최다 규모다.
- 건조벼이며, 매입 대상은 농가, 농협, 민간 RPC에서 보유한 2015년산 벼다.
-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농협이나 민간 RPC와 협의해 참여할 수 있으며, 매입과 관련한 입찰 세부 추진사항은 농협중앙회가 3월 하순에 공고할 예정이다.
- 전라남도는 이번 시장격리를 통해 14만 4천 972원/80kg(3월 현재 기준)인 산지 쌀값이 상승세로 전환돼 쌀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농가에서 보유한 벼의 판로확보와 원료곡 매입가 인상 등으로 연결돼 농가 소득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전남쌀 판로확보를 위해 납품처 확대노력, 수도권 직판행사 개최, 대량 소비처 발굴, 쌀 소비촉진 운동 등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 출처 : 전라남도

◆ '15년산 쌀 15만 7천 톤 시장격리 매입절차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5년산 쌀 15만 7천톤에 대한 추가 격리 절차를 3월 하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쌀 시장 안정을 위해 3.8일 국무회의를 거쳐 '15년산 쌀 15만 7천톤에 대한 추가 격리를 결정한 바 있다.
- 이번 격리의 매입대상은 농가, 농협, 민간 RPC가 보유하고 있는 '15년산 벼이며, 매입방식은 도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매입량은 '15년도 생산량 및 농협민간 RPC가 보유한 재고량 등에 따라 도별로 배분된다.
- 또한 금번 추가 격리는 농가가 보유한 물량이 우선적으로 매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농협의 '인터넷 조곡공매시스템을 통해 입찰이 실시되므로 추가 격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농협과 협의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입찰 준비과정을 거쳐 3월 하순에 매입 공고 및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고 내용은 농협의 인터넷 조곡공매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게재될 예정이다.
-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협 등 유관기관에 이러한 격리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농가 보유 물량이 우선 매입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농식품부는 시장 격리한 물량은 수급불안 및 가격 급등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밥쌀용으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을 자제할 계획임을 밝혔다.
- 아울러 지난해 말 농식품부가 쌀 수급균형 및 적정 재고 달성을 위해 발표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쌀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덧붙였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신규 취농 진입장벽 농지부터 낮춘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귀농·창업농 등 신규 취농인에 대한 맞춤형 농지 임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는 농식품 분야 창업과 관련, 농지확보 곤란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 귀농 애로요인(KREI, 복수응답) : 자금부족(51%), 농지구입(42%), 주거(26), 영농기술(21)
- 농식품부는 올해 초 전국 시·군단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규 취농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을 받아 귀농 유치실적, 관련정책 수립여부 및 지자체 사업의지 등을 종합평가 후 최종 7개도 26개 시·군*을 선정하였다.
- * 대상 시·군(도농복합시 포함) : (경기)안성·(충북)충주·옥천·(충남) 부여·청양·홍성·(전북)남원·김제·완주·진안·무주·임실·순창·고창·(전남)강진·고흥·곡성·영암·장흥·함평·장성·완도·(경북)예천·청송·(경남)남해·산청

- 매입대상 농지는 이농전업, 고령 은퇴농의 농업진흥지역안 1,000m²이상 1,983m²이하 농지로, 매입 후 2030세대 지원대상자, 귀농·창업농 등에게 3~5년간 임대 지원한다.
-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사업인 만큼 사업수요와 임대율 등 성과를 분석 후 확대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사업은 국민 편의 도모 및 사업 시너지 제고를 위해 중앙-지방 정부 간 협업으로 추진한다.
-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 관내 농지를 매입하고, 매입농지 정보를 각 지자체 귀농·귀촌센터로 통보하면 지자체는 방문한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농지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은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 사업참여는 지원대상 지자체 귀농귀촌센터 및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1577-7770)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농식품부 이정형 농지과장은 “농업의 특성상 영농경험이 부족한 경우 실패확률과 리스크가 큰 만큼, 동 사업을 통해 자본과 영농 경험 축적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8. 해외 농업정보

◆ 중국, 쇠고기 수급 불균형

- 중국 내 쇠고기 소비량의 증가속도에 비해 생산량 증가속도가 미치지 못하여 쇠고기 시장의 수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중국인의 연간 쇠고기 소비량은 2006년 기준 1인당 4.35kg에서 2013년 기준 5.15kg로 연간 약 6.7%의 증가율 보임. 중국의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미국(1인당 36kg), 일본(1인당 10kg) 등 선진국 소비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중국의 쇠고기 총 생산량은 689만 2,000톤으로 1980년 대비 30배나 증가함. 그러나 최근 5년간 중국의 쇠고기 생산량은 다소 느린 증가세를 보였으며, 연간 평균 증가율은 약 2% 수준이었음.
- 중국의 쇠고기 가격은 2008년 131.96위안/kg에서 2016년의 63.29위안/kg으로 약 2배 증가함. 동시에 중국의 쇠고기 수입량은 2000년 1만 6,000톤에서 2016년의 70만톤으로, 수출량은 4만 7,000톤에서 2만 5,000톤으로 하락함.
- 현재 중국의 쇠고기 수입량은 2000년에 비하여 약 40배 이상 증가한 반면,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함.
- 현재 중국에서는 일부 예외적인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산 축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쇠고기 역시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임.

- 그러나 2015년 말 삼계탕 및 우유의 수입이 허가되며 향후 축산물 수입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우업계는 한국 쇠고기의 수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 농업부의 정책 변화 추이를 주시해야 할 것임.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프랑스 대형유통매장 오상, 신선제품 Click & Collect 서비스 제공

- 프랑스 5대 대형유통매장인 오상(Auchan)은 3월 7일부터 돼지고기·송아지고기·닭고기·쇠고기·생선·베이커리·치즈 등의 신선제품을 온라인으로 주문/지불하고 소비자가 지정한 날짜에 지정한 매장에서 구매제품을 수령할 수 있는 Click&Collect 서비스 제공을 시작함.
- 해당 서비스는 신선제품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frais.auchan.fr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오상의 기본 온라인 구매 페이지인 Auchan.fr에서도 이용할 수 있음. 이번에 오상이 새롭게 제공하는 신선제품 Click&Collect 서비스를 통하여 소비자는 쇼핑시간을 절약하고, 원하는 상품의 재고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6. 03. 10.(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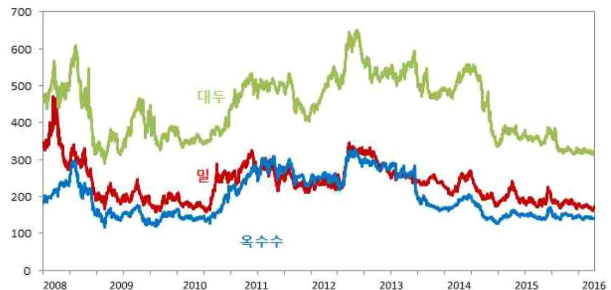
미국 기상악화 우려로 밀 선물가격 연일 상승세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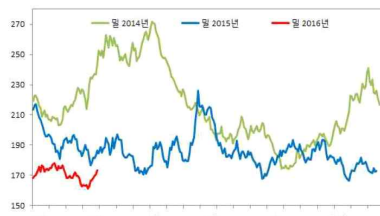
구분	기준일 (16.3.10)	전일대비	전월평균 (16.2)	2015 평균
밀	173.21	▲1.7%	169	186
옥수수	142.67	▲0.9%	143	148
대두	323.93	▲0.2%	320	347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대두: 3월물) 정산가격임.

단위 : US\$/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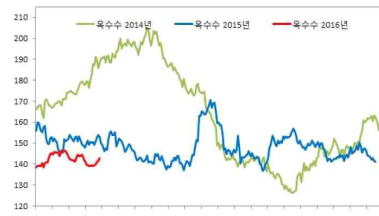


밀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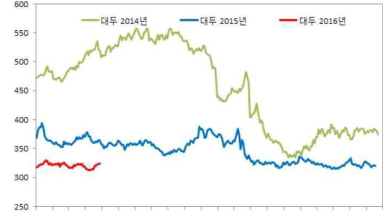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미 남서부 평원 밀 벨트의 건조한 기후와 델타지역의 폭우 등 기상악화에 대한 우려로 숏커버링과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 마감하였음.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미국의 기상악화에 대한 우려와 예상보다 많은 옥수수의 수출 수요로 가격이 상승함.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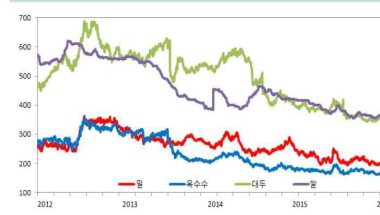


미 농무부의 월간 수급 보고에 따르면 밀과 대두의 세계 재고량이 하향조정되었으며 이는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 상승을 지원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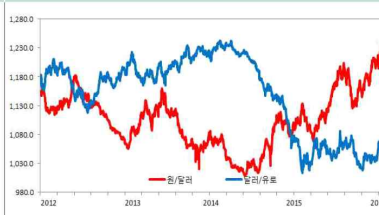
관련동향

- 대두와 옥수수 수출가격은 CIF 바지선 비용 상승과 농가 출하 지연 등으로 상승
- 국제유가는 주요 산유국 간 공조 가능성 감소, 중국 증시 약세 등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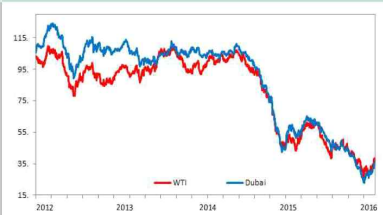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194	▲0.5%	환율	원/달러	1,215	▲0.8%
	옥수수	159	▲0.2%		달러/유로	1.100	—
	대두	343	▲0.3%	국제유가	WTI	37.84	▼1.2%
	쌀	375	—		Dubai	36.26	▲3.5%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4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6.3.9(수출가격), '16.3.10(환율), '16.3.10(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2016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지원 사업

□ 사업의 목적

-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는 소비지 판매장 개설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및 가격안정에 기여(사업기간 : '08년 ~ 계속)

□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4조(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 사업대상자

-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는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생산자·소비자단체 등 법인

□ 자금사용 용도

- 신규 개설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임차보증금 및 시설 설치비용
 - 기존 정부지원을 받은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의 임차보증금 및 시설 설치비용 포함(단, 기존 국고 융자금 상환이 끝난 법인에 한함)

* 매장 매대, 냉동·냉장설비 시설 등(소모성 비품은 제외)

□ 지원조건

- 재 원 :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 지원규모 : 1,440백만원
- 지원형태 : 융자 8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2.5~3%(농업인 2.5%, 조합 등 3%), 2년 거치 3년 상환
 - * 변동금리 선택 가능 : '15.11월 현재 연리 1.24~2.24% 수준 (농업인 1.24%, 조합 등 2.24%)
- 지원한도액 : 매장당 360백만원 이내
- 사업의무량 : 매장 임차보증금 및 시설 설치비가 대출액의 125%이상

□ 사업추진기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출처 : 전라남도



주간

전남농업정보

76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